

# 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1교시 국어 영역 •

1	5	2	5	3	4	4	5	5	1
6	5	7	5	8	3	9	5	10	1
11	3	12	1	13	2	14	3	15	1
16	5	17	4	18	2	19	3	20	4
21	3	22	2	23	3	24	5	25	4
26	5	27	3	28	4	29	2	30	1
31	5	32	5	33	5	34	4	35	4
36	2	37	1	38	1	39	3	40	1
41	4	42	1	43	4	44	5	45	2

### [화법]

####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4문단에서 발표자가 '□□박물관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이 ~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와 같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권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2. [출제의도] 발표 계획 반영 여부 판단하기

다양한 서적 인쇄에 금속 활자가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4문단에서 『대학연의』, 『효경』과 같은 유교 이념을 담은 책 외에도 ~ 다양한 분야의 책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어'라고 하며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시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아는 분이 많지 않네요.'라고 하며 청중이 조선 시대 금속 활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1문단에서 '오늘은 ~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며 발표 목적을 조선 시대 금속 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이 주자소를 생소하게 여길 것임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주자소를 그린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 그림은 ~ 전문적으로 맡았습니다.'라고 하며 주자소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국가 차원에서 서적 인쇄를 주도했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2문단에서 『태종실록』을 인용하며 국가가 책을 인쇄하는 관청을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세종 대에 이르러 조판 기술이 발달했다는 내용을 고려하여, 3문단에서 사진 자료를 활용해 계미자와 갑인자의 글자 크기와 간격을 비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 [출제의도] 청중의 반응 이해하기

학생 1은 '금속 활자는 한 가지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라고 하며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하고 있지만 학생 2는 '갑인자에 대한 기사를 ~ 알고 있었어.'라고 하며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언급하기만 할 뿐 수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하지만 계미자와 갑인자에 대해서만 ~ 아쉬워.'라고 하며 발표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인 '갑인자'의 '형태적 완성미'를 언급하면서 '갑인자가 ~ 어떤 점이 그럴까?'라고 하며 궁금한 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3은 '조선 시대 금속 활자의 발달 양상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어.'라고 하며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조선 시대에 주도된 다른 금속 활자에 대해 찾아봐야겠어.'라고 하고 있고, 학생 3은 '세종 대에 금속 활자가 ~ 조사해 봐야겠어.'라고 하며 발표에서 언급된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화법 · 작문]

#### 4.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학생 1'의 발화에서 다른 참여자의 발언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의 여섯 번째 발화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나에게 보내줘'라고 하며 대화 이후에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에서 '정리하자면 ~ 소개하자는 거구나.'라고 하며 앞선 '학생 3'과 '학생 2'의 발언을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에서 '교지 편집부에서 ~ 함께 이야기해 보자.'라고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봉사 활동 진행 과정 중에 ~ 좀 더 이야기해 줄래?'라며 '학생 3'의 발언을 듣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학생 2'는 '그렇겠다.'라고 '학생 3'의 발언 내용을 수용하며 '우리의 활동 ~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6.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이 글쓰기에 반영된 양상 파악하기

(가)의 '학생 3'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 제안한 참가자도 있었어'라며 다양한 주제의 봉사 활동을 운영해 달라는 참가자의 제안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3문단에는 "환경 보호"라는 가치 외에도 ~ 활동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라며 '환경 보호' 외의 다른 가치를 중심으로 기획된 활동에 대한 제안이 있을 뿐, '환경 보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봉사 활동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에서 '우리가 SNS로 홍보한 이유를 제시하면 좋겠어'라는 의견에 따라 (나)의 2문단에 '많은 학생들이 손쉽게 ~ 학생회 SNS에 게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히기 용이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가치 참여 펀딩이라는 말이 ~ 좋을 것 같아.'라는 의견에 따라 (나)의 1문단에 '가치 펀딩이란 ~ 가치 참여 펀딩을 정의'하며 '가치 참여 펀딩'의 의미를 '가치 펀딩'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그중에서 ~ 평가 내용을 넣어 보자.'라는 의견에 따라 (나)의 3문단에 '같은 가치에 공감하는 ~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의 '학생 3'의 두 번째 발화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의견에 따라 (나)의 2문단에 '먼저 학생회에서는 ~ 주제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른 글쓰기

'보호하는 환경'에서 학생회가 제시한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공감과 참여'에서 가치 참여 펀딩의 의미인 '공감과 참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푸른 내일을 향한 한 걸음'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작문]

####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1문단에서 선사 유적 박물관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한 후 '역사적 가치가 큰 문화재가 많은데도 관람

객이 적어서 아쉬웠'음을 건의의 배경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9.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기

[자료 2]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령에 맞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사례가 나타나 있지만 [자료 3]에는 '모든 연령대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의 사례가 나타나 있을 뿐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㉔]에 '○○시 선사 유적 박물관 인지도'가 '모름'이 63%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료 1-㉔]을 활용하여 박물관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② [자료 3]에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료 3]을 활용하여 지역 연계 홍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료 1-㉕]의 '박물관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프로그램 확충'이 45%로 나타나 있고, [자료 2]에 '우리 지역 선사 유적 박물관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전시 해설만 있어서 아쉬웠'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료 1-㉕]과 [자료 2]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㉕]의 '박물관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관람 동선 개선'이 25%로 나타나 있고, [자료 3]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관람 동선을 최적화하여 전시실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자료 1-㉕]과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 [A]에 있던 '그러므로 지역 기관의 ~ 뒷받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이 삭제되었으므로 적절하다. 그리고 [A]에는 박물관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보기>에 '그러면 박물관은 ~ 자량이 될 것입니다.'가 추가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문법]

####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음절 유형 이해하기

'옴다'의 '옴'은 종성에 오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남은 자음은 교체되어 [읍]으로 발음되므로 ㉠과 ㉡이 모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음절 유형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흙화덕[호화덕]'은 '흙'에서 종성의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여 [혹]으로 발음되므로 ㉠이 적용되었고, 축약으로 인해 첫 번째 음절 유형이 달라져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날알[나:달]'은 '날'에서 종성이 교체되어 [날]'으로 발음되므로 ㉢이 적용되었고, 연음으로 모든 음절 유형이 달라져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숨이불[숨:니불]'은 종성에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과 ㉡ 중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고, '니'첨가로 두 번째 음절 유형이 달라져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흙이[홀터]'는 '흙'의 종성에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과 ㉡ 중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고, 연음으로 두 번째 음절 유형이 달라져 ㉣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삭막[상막]’은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보다 낮으므로 앞 음절 종성 ‘ㄱ’이 ‘ㅇ’으로 바뀌어 ㉡가 일어났고, ‘공론[공논]’은 앞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뒤 음절 초성의 공명도보다 낮으므로 뒤 음절 초성 ‘ㄹ’이 ‘ㄴ’으로 바뀌어 ㉢가 일어났으므로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파악하기

㉠의 ‘잡혔다’의 ‘잡히다’는 ‘말 따위가 문제로 삼아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피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피동 접미사가 사용된 경우이고, ㉡의 ‘잡혔다’에서 ‘잡히다’는 ‘답보로 맡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사동사로 사용되었으므로 사동 접미사가 사용된 경우이다.

14. [출제의도] 형태소의 유형 파악하기

‘기쁨’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기쁘-’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ㅁ’이 결합한 것이고, ‘춤’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추-’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ㅁ’이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기쁨’과 ‘춤’은 ㉠과 ㉡에 속하는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비로소’와 ‘것’은 모두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므로 ㉠에 속한다. ② ‘바라던’의 ‘바라-’와 ‘이루자’의 ‘이루-’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므로 ㉡에 속한다. ④ ‘형은’의 ‘형’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고, ‘은’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므로 ‘형은’에는 ㉠,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⑤ ‘젓어’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젓-’이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어’와 결합한 것이고, ‘추었다’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추-’가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인 ‘-었-’, ‘-다’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젓어’와 ‘추었다’에는 ㉠과 ㉡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1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보샤’의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솔보덕’에서 현대 국어와 달리 ‘·’와 ‘봉’이 표기에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어리오’의 ‘어리다’는 현대 국어와 달리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르미’에서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가 양성 모음 ‘·’ 뒤에서 ‘의’의 형태로 쓰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넙고’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인문]

[16 ~ 21] <출전> 손화철, 「호모 파베르의 미래」

16.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가)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였던 엘벨과 마르쿠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고, (나)는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에 주목하였던 돈 아이디어와 핀버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파악하기

(가)의 3문단에서 ‘일차원적 사회란 ~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3문단에서 마르쿠제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도구적 기술론에서 ~ 취급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엘벨은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엘벨은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 경고하였다’고 하였고, 3

문단에서 마르쿠제는 ‘일차원적 사회에 대한 ~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다’고 하면서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 전략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나)의 3문단에서 ‘해석 관계는 ~ 인간에게 제공하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보기>에 드러난 자전거 바퀴의 크기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해석하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의 3문단에서 돈 아이디어는 체현 관계를 ‘기술이 인간의 ~ 역할을 하는 관계’라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자전거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나 장보기 등을 할 때 몸의 일부와 같이 기능하여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5문단에서 ‘사회구성주의자들이 ~ 주력’한다고 하였으며, <보기>에 드러난 자전거의 디자인이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어 가는 과정은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5문단에서 핀버그는 ‘기술코드란 기술이 ~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보기>의 자전거 앞뒤 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용도는 각각 디자인,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해당되어 기술 코드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5문단에서 핀버그는 ‘기술에 대한 ~ 끌어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보기>에서 자전거의 디자인이 선택되는 과정은 사회적 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다른 관점과 비교하여 적용하기

<보기>의 ㄴ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 기술의 의의이다’라고 하며 기술이 인간에게 끼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나)의 1문단에서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은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하였는데, (가)에서 엘벨은 ‘고전적 기술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가)의 2문단에서 엘벨 역시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기술이 초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ㄱ은 ‘기술이 인간 ~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2문단에서 돈 아이디어 역시 ‘인간이 세계를 ~ 기술의 영향을 분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ㄴ은 기술이 ‘인간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마르쿠제 역시 ‘산업 혁명 초기에 인간은 ~ 스스로 해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ㄴ은 현대 기술 사회가 ‘기술 표류’의 상태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나)의 5문단에서 핀버그가 ‘기술코드를 민주적으로 ~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고 한 것에서 핀버그 역시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ㄴ은 ‘기술은 만든 이의 ~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가)의 2문단에서 엘벨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 뿐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나)의 1문단에서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철학자들이 고전적 기술철학자들에 대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 ~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에서 ‘세밀하다’는 ‘자세하고 꼼꼼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달성하다’는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에서 ‘제거하다’는 ‘털어서 없애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모색하다’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주력하다’는 ‘어떤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회]

[22 ~ 25] <출전> 이동식 외, 「행정법 총론」

22.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신뢰보호원칙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은 율급을 통해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그런데 행정 기관의 ~ 신뢰보호원칙이라 한다.’를 보면, 신뢰보호원칙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문단의 ‘두 번째 요건은 ~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문단의 ‘세 번째 요건은 ~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다.’를 보면, 신뢰보호원칙의 세 가지 적용 요건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의 ‘그런데 요건을 ~ 알 수 있다.’를 보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더라도 그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6문단의 ‘하지만 국민의 ~ 할 수 있다.’를 보면,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정신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신뢰보호원칙이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핵심 개념 이해하기

2문단에서 ‘공적 견해 표명은 ~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공적 견해 표명은 ~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행정 기관이 명시적으로 ~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에서 ‘이처럼 행정 기관의 어떤 조치가 ~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5문단에서 ‘또 신뢰보호원칙은 ~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에 언급된 ‘국민이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 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는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행동이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보기>의 (나)에서 △△시는 B의 공장에 대해 ‘설립 승인’이라는 행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 기관이 B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을 행정 기관이 위법 상태에 대해 행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의 (가)에서 ‘법원은 ○○시의 ~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고 하였고, 1문단에서 ‘행정 기관이 신뢰보호원칙에 ~ 대상이 된다.’라고 한 것에서 ○○시의 토지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은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가)에서 ‘A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건축 준비를 했’다고 하였고, 1문단에서 ‘이처럼 행정 기관의 ~ 선행조치라 한다.’라고 한 것에서 A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

기>의 (가)에서 ‘법원은 ~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라고 하였고, 5문단에서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 판단되는 경우’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에서 농지를 보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A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나)에서 ‘법원은 B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행정 기관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하였고, 3문단에서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 것에서 법원이 행정 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는 것에 대해 B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과학 · 기술]

[26 ~ 30] <출전>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 추진기관 개론」

### 26. [출제의도] 사실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쇠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 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액체 추진제 로켓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연소 불안정이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진동’이 있고, 이때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고 하였으므로 B와 C 모두 소리는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한다.

① 4문단에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pm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한다고 했는데, A의 압력 변화가 5% 이내이므로 A는 연소실 내부 압력이 적정 범주 이내로 진동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B와 C의 경우에는 모두 압력 변화가 5%를 초과하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연소실 압력 진동이  $\pm 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한다고 하였으므로 B는 연소 불안정임을 알 수 있다. B의 주요 진동 주파수는 150Hz로, 3문단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한 경우 ‘10 ~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B에 나타난 연소 불안정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 A는 연소실 내부 압력이 적정 범주 이내로 진동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연소실 압력 진동이  $\pm 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 불안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한다고 하였으므로 C는 연소 불안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서는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를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비교하여 연소 불안정의 원인을 판단한다’고 하였고, 열음향 연소 불안정인 경우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 ~ 2,000Hz 사이에 있’다고 하였는데, C의 주파수가 1,200Hz, 연소실 고유 주파수가 1,200Hz이므로 C는 열음향 연소 불안정임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A는 연소가 안정한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⑤  $\pm 5\%$ 를 초과하는 압력 진동을 고려할 때 B와 C는 연소 불안정임을 알 수 있고, 주요

진동 주파수와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비교해 볼 때 C에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3문단에서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열 방출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하여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5문단에서 ⑥는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음향공 안에서도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④는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② 5문단에서 ⑧는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꾼다’고 하였다. ③ 5문단에서 ⑥는 ‘감쇠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④와 ⑥는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 29.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2문단에서 ‘연소 가스는 노즐을 통과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3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①은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봄이 되면 황사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에서도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현대시]

[31 ~ 33] <출전> 박목월, 「하단에서」  
함민복, 「감나무」

### 31.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가)와 (나) 모두 ‘-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2.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와 기능 이해하기

㉠의 ‘새들’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있을’ 쪼고 있으므로 ‘새’를 방황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으나 감나무가 자신을 내어주는 특성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의 ‘아무리’와 ‘불러도’는 ‘갈밭 속’에서 ‘동행을 잃’은 화자가 간절하게 ‘그들’ 반복하여 부르는 행동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하지만’과 ‘이미’는 ‘젊은 시인’의 부름에 응답하고자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는 감나무 가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의 ‘애초부터’는 감나무의 겉모습이 ‘온몸이 부르터’ ‘늪수그레’하지만 이와 다르게 감나무가 가진 ‘열매’는 처음부터 ‘단단하다’는 특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가)에서 화자의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화자가 ‘흔들’린다는 것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화자의 고독감을 알 수 있으며 그런 흔들림이 ‘어쩔 수 없’다는 것에서 화자가 고독감을 모든 사람이 지닌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에서 감나무가 ‘땀감을, 떨구’는 것은 감나무가 자신을 다스리는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 버린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갈밭 속’을 ‘젊은 시인과 함께’ 가던 화자가 자신이 ‘혼자였다’고 한 것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누구나’ ‘동행을

않기 마련’이라고 한 것은 화자가 그러한 상황을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가을’이 지난 후 ‘눈바람 치’는 것에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감나무가 ‘열매를 매’단 후 ‘다시 알몸으로’ ‘동안거에’ 든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의 순환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하늘 길을 가면서’는 감나무가 이상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렸다는 것에서 화자가 감나무를 통해 이상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자세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 ‘갈대 안’에 있는 화자가 ‘갈밭’이 ‘흔들린다’고 느낀 것에서 갈밭에 있는 갈대의 흔들림을 통해 화자가 불안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에서 화자가 감나무의 모습을 ‘참 늙어 보인다’고 하고 ‘무슨 생각’이 ‘많았던지’라고 그 이유를 짐작한 것에서 화자가 감나무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현대 소설]

[34 ~ 37] <출전> 서영은, 「삼각돛」

###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명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럴 때조차 그는 ~ 능력 밖일 것이다.’, ‘명훈은 우리가 ~ 우리의 몫까지.’ 등과 같이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이경숙이 ‘내 옆구리를 꼭’ 찌른 후 ‘라운지를 가리키는 듯’, ‘눈을 찡긋’하였고 이후 라운지로 이동하여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아, ‘나’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편집국 사람들은 횡수가 잦아짐에 따라 ~ 여기게끔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국장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 중요하게 여기며 명훈을 ‘추궁’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명훈의 의자가 ‘나사가 빠졌는지 ~ 기우뚱 쓰러’지는 상태였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명훈이 떠난 후 ‘빈 채로 남겨져’ 있었던 명훈의 의자가 ‘손님이 올 때마다 ~ 사람에게 내돌리어’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36.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파악하기

‘라운지’는 ‘나’와 이경숙이 만나서 ‘가만히 있어도 ~ 느낄 수 있었’던 장소이므로 ‘나’와 이경숙이 명훈을 매개로 동질감을 느낀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37.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명훈’이 ‘자기 담당’의 일에 ‘능력껏 ~ 미봉책을 마련해 놓’았던 것은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노력한 모습이, 굴복을 강요하는 현실과 타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국장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 만들고 싶은지도 모른다’에서 국장 앞에서 변명하고 남을 탓하며 상황을 모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이는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가 떠나버린 명훈을 ‘나의 새’로 비유하며 ‘자신의 새가 ~ 날아다니기를 바라’며 ‘사뭇 가슴이 설레였’다는 것에서 억압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실존 회복에 대한 욕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명훈이 ‘다시는 이 책상 앞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책꽂이는 잘 ~ 깨끗이 치워진’ 상태로 떠난 것에서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가 ‘펠리컨 새는 ~ 그곳에 이를’ 것이라 말하는 것에서 ‘나’가 상상한 펠리컨 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고전시가 · 고전수필]

[38~41] <출전> 정언유, 「탐라별곡」  
채제공, 「안화설」

### 38.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의식이 균색하니 흥미가 있을쏜가’, ‘무엇으로 빛을 갖고 어디에서 꾸어 살아날꼬’ 등에서, (나)는 ‘억조 백성의 목숨이 누구인들 임금 한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겠는가’ 등에서 각각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39.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 이해하기

㉠은 순풍의 힘으로 험한 바다라는 계약을 넘어 외부 세계에 민생의 실정을 알리며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 과거에 외부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행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은 굶주린 백성이 지방관인 작가의 가마를 잡고 목숨이 나라에 달렸다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해마다 나라에서 구호미를 얻어 와 곡식을 더 청하기도 면목이 없고, 생계가 막연해 나라에 곡식을 청하지 않기도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찬안의 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의주 부윤의 말을 마땅하지 않게 여기며 그 말의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여러 고을이 관찰사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 관찰사가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 꽃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0. [출제의도] 작품 속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 가리키는 내용은 지방관인 작가가 직접 파악한 현지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 실정으로, 작가가 백성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 가리키는 내용은 관서의 여러 고을이 찬안을 올릴 때마다 늘 천박하게 꽃 장식을 더하여 비웃을 만하다는 것으로, 이는 작가가 각 고을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꽃 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오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적절하다.

###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가)의 작가가 ‘우리 임금’이 추울까 염려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표하는 관직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작가가 ‘임금의 처소가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이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첨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악천후 때문에 농사를 망쳐 ‘병마로 짓밟은 듯’하게 되어 ‘남은 이삭’조차 ‘빈 꺼풀뿐’인 ‘밭이랑’을 ‘돌아보’는 것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천은을 잊지’ 않고 ‘부자형제 상애하’며 ‘도리’를 지키면 빈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작가가 백성들에게 유교 이념에 따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작가가 ‘말마다 아첨하며 일마다 좇’는 자들이 ‘나라를 쪼먹고 백성을 해’쳐 ‘나라가 그에 따라 멸망’할 수도 있다고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는 것에서 임금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에서 작가가 백성의 ‘간고’를 ‘어이 모르’겠느냐며 ‘슬프다’고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나)에서 ‘억조 백성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임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서 관직자로서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고전 소설]

[42~45] <출전> 작자 미상, 「음양육지환」

### 4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상이 방성대곡하시고 ~ 차마 보지 못할러라’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원수가 ‘성’에서 탐마의 말을 듣고 ‘내 그릇 ~ 이곳에 왔는지라.’라고 하는 것에서 원수가 소년자의 계교에 속아 대동부 성하로 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화소저의 부친이 유서에서 ‘너의 계모 유씨는 ~ 착하지 못한지라.’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소저가 춘매를 데리고 ~ 태화산을 찾아’가다가 만난 ‘한 노파’가 ‘이 산이 곧 태화산’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소년자가 경태와 ‘어우러져 싸워 ~ 쫓아 떨어지니’ 소년자가 ‘명제는 빨리 ~ 잔명을 보전하라’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문득 합성이 ~ 군을 거두어 돌아가거늘’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에는 유택이 ‘방문을 열고 ~ 형영이 없’다는 데에서 소저가 ‘침소’에 없다는, 청자인 유씨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에는 ‘천자가 서문을 나 백하로 가셨다’는 데에서 천자가 향한 곳이 ‘백하’라는, 청자인 원수가 알지 못했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하기

소저는 ‘남복을 개착’하라는 ‘부친의 유서’를 보고 남장을 생각해 낸 것이지 소저가 지혜를 발휘해 남장을 생각해 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유씨가 ‘네 나의 좋은 말 ~ 장차 어찌할쏘냐?’라며 소저를 ‘무수히 구박하고 돌아’갔다는 것에서 주인공의 개인적 위기가 계모에 의한 가족 내 갈등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태화산 승녕관을 찾아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는 부친의 유서에 따라 찾아간 ‘태화산’에서 여관이 ‘귀객 양인이 오리라’는 것을 선생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원수가 ‘자전금을 둘러 ~ 사면으로 흠어’지게 하여 ‘천자를 구’한다는 데에서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영웅적 면모를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업담과 소년자를 물리친 원수에게 천자가 ‘벼슬’을 하사했다는 데에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이 사회적 성취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